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월 6일(목) 총 3매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 자활지원담당 유병임 ☎440-1541 김태수 ☎440-154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제도권 밖 저소득층에 ‘인천형 꿈이든일자리’ 제공

- 제도권 밖 근로빈곤층...기준중위소득 50%초과 75%이하 -
- 사업 참여 신청은 1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자활센터로 -

인천시가 제도권 밖 근로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소득초과로 인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빈곤노출 위험도가 증가하자 인천시가 실질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구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인 ‘인천복지기준선’ 마련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인천형 꿈이든 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관협업을 통해 인천

시와 일자리제공기관이 참여자 인건비를 50%씩 공동 부담한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일자리제공기관을 모집한 인천시는 1월 중 참여자 모집 및 일자리 매칭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업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제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확정되며, 참여자 모집인원은 약40~50명, 근로기간은 약9개월로 계획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인천시민은 1월 7일부터 17일까지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www.injiwon.or.kr)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보옥 시 생활보장과장은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이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올해 사업의 성과분석을 거쳐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중·장기적인 인천형 저소득층 일자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75%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 소득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75%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불포함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
2인	2,316,000	79,882	39,395	80,624
3인	2,988,000	102,504	83,850	102,900
4인	3,657,000	125,705	114,866	127,006
5인	4,318,000	148,183	145,418	150,077
6인	4,971,000	170,536	174,281	171,997
7인	5,623,000	194,212	204,791	197,243
8인	6,274,000	217,142	234,053	220,987

*상기자료는 2021년 기준으로, 참여자 선정은 2021년 중위소득 기준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

*가구원수는 주민등록 상 가구원으로 확인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적용함